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⑤

4. 지명(地名)·성명(姓名)에서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지명의 오기를 흔히 신문·우편물·표지판(標識板) 등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서울의 모 터미널 안내판에 오기를 한 것을 예시해 보면 예천(醴泉)에서 '京'자를 '川'자로,

포천(抱川)에서 '抱'자를 '浦'자로, 내포(內浦)에서 '浦'자를 '浦'자로, 집촌(店村)에서 '店'자를 '店'자로 오기를 했고, 김화(金化)를 금화로, 김천(金泉)을 금천으로 등 오기가 많았는데 '金'자는 성명·지명으로 '金'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金'으로 표기한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오기한 것으로는 부산의 동명불원(東明佛院)에서 '佛'자를 '佛'자로, 해인사 입구의 간판에 산신각(山神閣)의 '閣'자를 '閣'자로, 김해공항(金海空港)에서 '港'자를 '航'자로, 강화

지역 군도(郡道)의 '郡'자를 '軍'자로 잘못 표기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정확한 지명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특히 타인의 성명(姓名)을 오기하는 것은 큰 실례다. 예를 들면 같은 성씨 가운데 국어로는 류·유이지만 한자로 표기하면 柳·劉·柳·柳 등 각각 다른 한자의 성씨(姓氏)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해야지 타인의 성명을 비슷하거나 틀리게 표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바른 표

기를 해야 한다. 李·林·朴·柳·朱·楊·桂 등 성씨의 한자는 '木'자의 부수(部首)임으로 '木'자에서 내려오는 획을 '丨'자로 분명히 그려야지 '丨'자로 필사(筆寫)해서는 결코 안된다. 나무뿌리가 땅 속으로 바르게 뻗어 내려가야 나무가 착근(着根)해서 두성하게 성장하지만 뿌리가 꺾여서 뻗어서 내려갈 수도 없게 되므로 뿌리가 쉽게 말라죽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남의 성씨를 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교육에세이 69

삶의 근본은 진실(眞實)입니다



이호연
영북초등학교 교장

최근 인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부터 가산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그 조형물에 들어갈 글귀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주문을 받았다. 가산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인건에 있는 소공원에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좋은 글귀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글귀가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작성해 보겠다고 즉석에서 확답해 드렸다. '바르게살기'가 어려운 요즈음

세상에서 '바르게살기'를 위해 노력하는 가산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활동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효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는 요즈음 사회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아름다운 행사는 흔하지 않은 행사라고 보아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분들께서 추진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르게살기의 실천을 위한 행사를 보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처럼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볼 수 있었다. 조형물에 들어갈 글귀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토대로 하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삶의 근본은 진실(眞實)입니다. 생활의 근본은 질서(秩序)입니다. 조직의 근본은 화합(和合)입니다.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바르게

정신을 길러 윤리도덕의 회복과 준법의 생활화로 조화롭고 기본이 바른 선진가산 건설을 통하여 살기 좋은 가산건설을 기리고자 본 조형물을 건립합니다.』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적용해 볼만한 좋은 '바르게살기'의 모범도 될 것 같다. 진실을 기본으로 한 삶, 질서를 기본으로 한 생활, 화합을 기본으로 한 조직이 가능하리니 삶의 질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지도는 결국 '바르게살기' 하는 요령을 전달하는 측면이 강하다. 행동을 전 권일률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측면에서 다양성과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활지도 할 때 고려해 볼만한 속칭 인생의 다섯 단계 공식이 있다.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이다. 결국 생각이 운명을 낳는다는 의미다.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갖게 하느냐에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급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여 생활지도에 임하리라 본다. 일회성이 아닌 향상성을 추구하면서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지도의 덕목을 설정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단초라고 본다. 삶의 근본은 진실이라는 바탕에서 학생 스스로의 생활을 정리해 보게 한 후 생활의 원칙을 마련하게 하여 실천해 보게 함으로써 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고,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하여 바른 인격을 갖추게 하면 결국 인성교육의 상위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기고

모든 백성이 잘사는 비결



이중희
포천신문의 회장

여섯 권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것도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더 줄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는 두 권의 책으로 대폭 줄였으나 왕은 상을 찌푸리며, "먹고살기 바쁜 백성들이 그것을 언제다 읽느냐"고 하면서 "더 줄여 오라"고 화를 내면서 책을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 왕은 그 책을 다시 정리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추리고 추려서 겨우 한 페이지의 내용으로 요약하여 왕에게 올렸다. 그럼에도 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 하면서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언제 다 읽으려 하느냐"고 질책했다. 왕은 그 책을 다 훑어 본 다음 말한다. "좋은 비결이 쓰여 있긴 하지만 열두 권이나 되는 장서를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언제 다 읽을 수 있단 말이나,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 꼭 줄여서 가지고 오너라"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격렬한 토론 끝에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학자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페이지의 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의 글귀 한마디만 적어서 왕에게 다시 바쳤다. 왕은 그것을 받아 읽어보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무릎을 치며 말한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백성들이 이 비결 한 마디만 깨달아서 실천하면 우리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되었다"고 하면서 만족해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 한마디로 줄여진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진리의 명언이었다. "공짜는 없다." 이 명언은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요약하여 왕에게 올렸다. 그럼에도 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 하면서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언제 다 읽으려 하느냐"고 질책했다. 왕은 그 책을 다 훑어 본 다음 말한다. "좋은 비결이 쓰여 있긴 하지만 열두 권이나 되는 장서를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언제 다 읽을 수 있단 말이나,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 꼭 줄여서 가지고 오너라"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격렬한 토론 끝에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자유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무실 개소식에 즈음하여



이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 영북지역지사장

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어르신들의 부양 문제를 해결해 나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로서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우리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급여대상자 선정에 따른 불만,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우리 공단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전 국민의 협조와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내 가정에 어르신이 없다고 이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다면 노인요양보험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포천지사는 원활한 등급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15명의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판정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이며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나아가갈 것이다. 이제 우리지사 전 직원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과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포천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 제도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기고

태안봉사를 다녀오면서

김명숙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이사



평소대로라면 한참 잠에 빠져있을 새벽 1시에 일어나 한달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태안반도 기름제거봉사를 체험하고 왔다. 부끄럽지만 내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서는 길인자라 잠도 못 자고 일찍 떠나는 길에도 피곤한지도 몰랐다. 다만 남들은 이미 다녀온 터라 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안고 4시간 가량의 버스길과 1시간 남짓한 배길로 충남 보령에 근접해 있는 녹도라는 섬에 도착했다. 가는 뱃길에 많은 봉사의 손길에 힘입어 거의 복구가 끝나 곧 있을 머드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주민들을 위해 머드축제를 홍보해 달라는 담부의 말과 기름 유출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주변

의 섬들이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도착한 섬은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인지 바위가 많이 거칠었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하는 곳은 바위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간 위치에 있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런 장소로 보였다.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 자리를 잡았을 때 역한 냄새가 속이 괴로웠다. 하지만 그렇게 역한 기름에 몸살을 앓고있는 바위에 하얀 흡착포가 시커먼 기름에 절여가는 중에 절로 손길이 분주해지고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기름 짙은 바위뿐 아니라 자리잡고 앉았던 소리가 살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고품을 내고있는 모양에 분주한 손길에 손톱이 이쁜 건 일도 아니었다. 작

업을 시작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들어오니 나가려는 말을 전하신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장 더... 한 장 더 그를 적서 내고 보니 정말 물이 차올라서 왔던 길로는 갈 수 없게 되어버렸고 바위를 타고 오르내리러 하다 위험한 지경이 되어버렸다.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 넘어 어렵게 배를 다시 오르기까지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손길을 받아 무사히 도착을 해서야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이번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여성회장이 지정을 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모 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도움의 손길

을 기다리는 자연에 많은 짧은이들의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는 정말 바람직한 기업을 당부한다. 아직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현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간절하다.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문화강좌

포북절도 웃음전도사 한광일 박사 포천에 오다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4월25일(금) 2회 14시~
장소 : 신읍동 종합복지회관 2층(노인대학강당)
대상 : 통일자문위원, 일반시민, 노인대학생
강사 : 1강의-한광일박사(한국웃음센터원장)
2강의-백승주박사(통일연구원)

세부추진계획

일정	강의내용	강사	비고
4월18일(금) 14:00 노인대학강당	웃으면 통일된다	한광일 박사	포북절도 웃음전도사
4월25일(금) 14:00 노인대학강당	통일총론과 통일전망	백승주 박사	통일연구원

주소 : 포천시 신읍동 135-17 연락처 : 031-535-4141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포천시협의회장 윤장일